

드론축구, 세계인의 레저스포츠로

전주시, 12일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육성방안·산업화 전략 등 논의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드론 축구를 세계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국내 드론축구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 관련 기업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대학교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오는 1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드론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2017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드론축구 열풍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국내 드론축구의 저변을 확고히 다지고 드론축구의 세계화 및 산업화를 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드론축구라는 레저스포츠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힘을 모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설경원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대표발제와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드론축구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드론축구 개선방안과 산업화 전략, 마케팅 및 홍보전략 등 드론축구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드론축구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대표 발제는 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분야의 전문가인 엄기식 필드테크 대표가 맡는다. 이어, 김상훈 한국스포츠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재항 허바스코리아 대표, 이범수 캠퍼스종합기술원 팀장이 각각 '드론 레저스포츠산업 육성방안'과 '드론축구 해외마케팅 방안', '드론축구 경기 규정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날 패널 토론에는 설경원 전북대학교 교수와 유기호 전북대학교 교수, 장성기(썬) 신드론 대표, 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이상민 케이피엑스 대표 등 5명의 전문가들이 드론축구 육성방안을 위한 밑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드론축구 레저스포츠 산업화와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신드론과 우리항공 등 전북지역 드론기업들이 레저스포츠용과 산업용 등 각 부



청소년에게 사랑을 전해요

지ניה와 올해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평화1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평발' (평화1동 생활의 발견) 공동체가 최근 2년간 모은 수익금 1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청소년지킴이금으로 지정 기탁했다.

행한다. 또한, 이날 패널 토론에는 설경원 전북대학교 교수와 유기호 전북대학교 교수, 장성기(썬) 신드론 대표, 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이상민 케이피엑스 대표 등 5명의 전문가들이 드론축구 육성방안을 위한 밑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드론축구 레저스포츠 산업화와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신드론과 우리항공 등 전북지역 드론기업들이 레저스포츠용과 산업용 등 각 부

하의 등 각종 파급 효과를 내면서 드론레저스포츠 산업화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유소년용 드론축구공과 경기장을 제작·보급하고, 방과후 학습과 연계한 교육을 드론축구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신규 시장 창출 및 레저스포츠 산업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드론축구 세계대회를 개최해 중국과 일본, 유럽, 남아 등 드론축구 열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신드론과 우리항공 등 전북지역 드론기업들이 레저스포츠용과 산업용 등 각 부

하는 등 각종 파급 효과를 내면서 드론레저스포츠 산업화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유소년용 드론축구공과 경기장을 제작·보급하고, 방과후 학습과 연계한 교육을 드론축구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신규 시장 창출 및 레저스포츠 산업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드론축구 세계대회를 개최해 중국과 일본, 유럽, 남아 등 드론축구 열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신드론과 우리항공 등 전북지역 드론기업들이 레저스포츠용과 산업용 등 각 부

'안 쓰는 장난감·육아용품 나눠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나바다 알뜰장터 열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의류, 책 등의 유아·아동 물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알뜰장터가 열렸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일 센터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나바다 알뜰장터 '장난감·육아용품 나눔 축제'를 열었다.

이날 나눔축제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꼭 필요하지만 자녀가 자라고 나면 버리기도 아깝고, 보관하기도 불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육아용품인 장난감과 의류, 신발 등을 필요한 물건

과 교환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또, 각종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판매됐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전 판매자를 모집했으며, 부모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을 위해 솜사탕과 포토존, 플레이콘 액자만들기, 에어바운스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부스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 내 장난감대여실 장난감 중 일부를 할인 판매했으며, 행사 수익금은 연말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도청 감사실 압수수색

조달원가 심사 비리 의혹으로

전북경찰이 조달원가 심사 비리 의혹에 관해 전북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도청 감사실 직원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조달원가

심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에 대해 진행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대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종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CCTV 없는 사찰만 골라 턴 4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8일 상습절도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에 남원시 산내면의 한 사찰에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충북 등 전국을 돌며 모두 21곳에서 1,3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작은 사찰이나 암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출소를 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제주도로 달아나다가 전남의 한 선착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무주리조트 운영행태 개선 촉구 항의집회 나서

"부영의 축소지향형 운영·지원 축소·계곡수 오염 등으로 지역상권 황폐화돼"

스키장 주변 무주리조트 주민들은 10여년 넘게 이어 왔던 상생협약을 부영의 무성의한 태도와 있으나마나 한 조건을 내세우며 반발해 전면집회에 나섰다.

(주)대한전선은 이곳 지역주민과 상생협약을 맺고 레저산업 육성과 고객서비스를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부영이 무주리조트를 인수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고 지역주민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부영의 축소지향형 리조트 운영행태와 리조트에 대한 시설투자 외면, 인수 당시 약속했던 워터파크 건설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역상권이 황폐화되어 가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스키장의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오폐수 유입으로 계곡수 오염에 심각한 문제 있음에도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곳 스키장호수가 해마다 봉사활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무주지역 초·중·고 스키캠프에도 지원을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국가대표]의 배경이 되었던 스키점프대는 무한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 있다.

또한 상생조건으로 주변 스키렌탈샵에 공급해왔던 리프트권의 할인을 계속 줄여 스키장 주변 렌탈샵과 펜

션, 식당 등은 고객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스키장 눈 만들기에 필요한 계곡수 유수인용, 구천계곡 오염원 등에 대해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 왔으나 부영이 리조트를 인수한 이후 리조트직원들의 대폭 감원, 약속해 왔던 워터파크 건설 표류, 리조트 재부자와 리모델링 외면으로 지역상권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26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부영의 리조트 운영행태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